

자식처럼 키운 돈 둑둥 떠오르자 '망연자실'

■ 최강 한파에 돈 3만마리 동사…고흥 양식장 가보니

남은 줄동 폐사할까 잠 못들고 지켜…여수서도 9만마리 동사

바다 얼어붙어 조업 포기하고 하우스 농가 냉해 걱정 태산

“어떻게 키운 돈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죽어버리다니….”

25일 오후 고흥군 도양읍 인근 바다에서 돈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중인 박규순(65)씨는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겨울철 출하를 앞둔 줄동 3만여마리가 갑자기 찾아온 한파 등의 영향으로 폐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씨의 가두리 양식장에는 하얀 배가 뒤집힌 채 둑동 떠있는 줄동이 가득했다. 죽은 줄동에서 풍기는 비린내까지 진동했다.

박씨는 고흥에서 유일하게 줄동 양식을 해온 ‘줄동 박사’다. 30년간 양식업을 하면서 14년째 줄동을 고집했다. 이런 박씨도 한파가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한 두 마리씩 죽어가는 줄동을 살릴 수는 없었다.

박씨는 “지난해 5~6월 20g 무게의 치어(稚魚) 30만 마리를 구입한 뒤 양식장 옆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며 자식처럼 돌봐왔다”면서 “최근 상품가치가 있는 270~300g짜리 줄동 13만마리를 출하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한파와 저수온이 양식장을 덮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한파가 찾아왔다가 따뜻해지고 다시 23일부터 한파가 찾아오는 등 블라코스터처럼 기온이 변하는 바람에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집단으로 폐사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남은 줄동 14만마리도 폐사하지 않을까 봤지만 차지 못한 채 양식장을 지키고 있다. 박씨는 “그나마 살아있는 14만마리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아 이미 상품 가치를 잃었다”며 “남은 줄동 역시 며칠 안에 전부 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줄동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kg 당 2만 2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번

에 폐사한 3만마리의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돔류의 경우 겨울철 생존 수온은 5~7도로 다른 양식어류에 비해 저수온에 의해 폐사되기 쉬운 어종으로, 지난 12일 박씨의 가두리 양식장 인근 녹동왕의 수온은 6.6도였다. 이는 평년보다 2.5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도 정도 낮은 수온이다.

여수 지역에서도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여수시 화정면 해상 가두리양식에서는 이날 오전 돈 9만 2000마리가 죽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한파·저수온 텃에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소 측은 수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물고기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남해안의 수온은 5~8도를 기록중이다.

한파로 바다가 얼면서 어민들의 조업차 질도 빛어졌다. 여수 소라면과 강진군에서는 농민들이 어업과 갓벌작업을 포기했다. 어민들은 한파로 인해 수온이 크게 떨어져 어획량이 줄면서 출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제철을 맞은 물 수확도 날이 풀리기 전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농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떨기·토마토 출하를 앞두고 일부 농민은 작물에 냉해를 입었다. 일부 농민은 산소 부족으로 작물이 고사할 위험이 있는데도, 궁여지책으로 값이 싼 알코올에 불을 붙여 하우스를 난방하고 있다.

담양군 월산면에서 하우스 땅기를 재배하고 있는 박태성(50)씨는 “지금 땅기에 꽂이 피고 한창 익어야 할 시기인데 일부 열매가 얼어버렸다. 하우스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흥=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5일 고흥군 도양읍 가두리양식장에서 한파로 폐사한 줄동을 한 직원이 뜰채로 건져올리고 있다. /고흥=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최고 영하 15도…28일부터 한파 주춤

북극의 한기를 물고 찾아온 한파가 28일부터는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고장·전남은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5도 정도 떨어져 곡성·영하 15도 등 강추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상청은 또 28일부터는 광주·전남이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0도에서 4도 분포를 보여 기온이 평년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최고기온이 영상

권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에는 전남 서해안 일부 지역의 경우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1~3cm 눈 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서해안 일부 지역을 세워한 광주·전남은 27일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까지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좋음’ 단계로 예보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존리 전 대표는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존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변’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 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연합뉴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전과자 유인해 마야 누명 씌운 마약수사 경찰
필로폰 미리 차에 숨겨놓고 지인 시켜 불러내

마약전과자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한모(42)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또 한번 전과자가 될 뻔했다. 마약운반책으로 활동해 온 한씨는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과 짜고 조수석 밑에 필로폰을 숨겨놨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고, 교도소에 갇혀 4개월간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과도한 실적부담 때문에 마약 전과자를 유인해 죄를 덮어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노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이었던 노 경위는 지난해 8월 8일 필로폰 거래 현장을 적발한 것처럼 꾸며 차에서 내리는 A(41)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워 불법 체포한 혐의다.

당시 노 경위는 A씨가 앉아있던 조수석 아래에서 필로폰 42g을 발견한 뒤 A씨를 체포했으며, 한씨에 대해서는 “마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체포하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태양광 임대사업 비리’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 적발

경찰이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입찰 비리를 저지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을 적발했다.

순천경찰은 태양광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남테크노파크 A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테크노파크의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결탁해 내부 서류인 입찰 공고문을 미리 공유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자격요건을 고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과 B단장은 골프로 친목을 다

의심 피하려 양복 입고 차량 절도…차주 나타나 범행 ‘들통’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갈끔한 양복 차림으로 차량 절도를 일삼던 30대 남성이 범행 중 차주인 이 나타나는 바람에 쇠고랑.

○…동종 전과 3번의 박씨는 양복을 입은 직장인 차림으로 차량 주인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박씨가 A씨를 밀쳐 전지 7주 상당의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절도 보다 차별이 무거운 ‘준강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용희기자 kimy@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1
- 자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0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3억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3월초 입주 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